

충만한 보배



보배의 서신: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두어 달은 변화된 고국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더니, 이제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걸 보니 많이 익숙해졌나 봅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감격하던 한국 음식을 무덤덤하게 대하는 것을 보니 이곳의 일상에 많이 적응이 된 듯 보입니다. 저희의 안식년 일상은 단순합니다. 오전에는 기도와 묵상에, 오후엔 기회가 되는대로 동역자들을 만나고, 독서를 위해 도서관을 찾고, 정기적으로 광안리바닷가를 걷습니다. 지난 12월말 저희 다섯 식구가 모두 코로나 확진을 받아 집에서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확진이 되어 가족과 떨어져 격리시설에 들어가서 홀로 열흘을 더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연말 연초를 기도하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니 감사하고, 한국에서 코로나를 겪게 하시니 감사하고, 심한 증상없이 비교적 가볍게 지나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은이는 1월부터 양산에 있는 대안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학교 생활을 힘들어 하더니 이젠 어느 정도 적응을 하였습니다. 고 3 나이라 진로에 대한 고민,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나 봅니다. 선교지에서는 동양인이라 적응할 때 어려움을 겪더니, 이곳에서는 한국 친구들과 정서가 달라 나름 문화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이가 이 모든 과정이 특권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대학을 놓고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4월에 있을 고졸 검정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접하면서 엄마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영은이가 주님을 가장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시작했던 치과 진료가 코로나로 늦어지는 바람에 두 달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치과 치료를 마치고 나니 큰 숙제를 끝낸 것 같아 홀가분합니다. 남편과 저는 얼마 전, 선교사명 감당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사들의 주치의와 같은 세계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대체로 건강한 편인데, 저는 자궁에 꽤 큰 근종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처음하는 수술이라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수술할지를 놓고 기도중에 있습니다. 안식년 기간동안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건한 몸으로 다음 사역을 힘있게 하라고 하시나 봅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수술 과정과 이후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